

##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奇 光 舒\*\*

1. 머 리 말
2. 전쟁 발발 이전의 한반도관
3. 개전과 외피적 불개입
4. 동맹군대의 참전 문제
5. 휴전에 이르는 길
6. 결론을 대신하여

### 1. 머 리 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은 사회주의 모국 소련의 최고지도자로서 다 른 사회주의국가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수령 중의 수령'으로 추앙되었다. 이들 국가의 최고지도자들은 스탈린 앞에서 스스로 '제자'로 자처하는 경양

\* 이 논문은 200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교수

을 보였고 그의 지도적 지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모택동이나 김일성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전쟁에 관한 소련의 정책 결정에서 스탈린이 수행한 역할이 절대적 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당시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인 소련공산당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조차도 한국전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는 사실상 소외되 어 있었다. 소련의 정책은 스탈린의 결정을 기반으로 소련 군부와 외무성의 관련 기관들이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형성되었다.

소련의 군수 지원에 의존한 채 전쟁을 수행한 북한지도부는 스탈린의 지 도를 수용함으로써 '사회주의 모국'에 충실성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 는 대규모 전쟁을 지휘한 경험을 지닌 스탈린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신생 동맹국의 무력통일 전쟁에 안도감을 가질 수 없었다. 게다가 우려했 던 미국의 개입과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그는 거의 3년 간 이 전쟁에 몰두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글은 한국전에 대한 스탈린의 개입 문제, 특히 그의 지도적 역할에 대해 시기별, 단계별로 고찰한 것이다. 여기서 지도와 주도는 전혀 다른 차 원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필자는 전쟁의 주도권이 김일성과 박 현영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도부에 있었다는 전제에서 스탈린이 어떠한 방 식으로 전쟁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sup>1)</sup>

본 글의 목적은 한국전쟁 시기 스탈린의 대 전쟁 정책 전반을 조밀하게 추적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러기에는 한정된 지면만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가 견지하고자 했던 입장과 그것의 변화 과정 관련 자료를 압축

1) 러시아에서 한국전 관련 고위 정책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국내의 최근 연구들은 대체로 스탈린의 전쟁 주도권 행사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 견지에서는 신복룡 이 처음으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신복룡, 「한국전쟁의 기원 - 김일성의 개전 의 지를 중심으로 -」, 『韓國政治學會報』 30輯 3號, 1996. 이외에도 이 시각에 입각한 주요 연구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김학준, 『한국전쟁 - 원인 · 과정 · 휴전 · 영향』, 博英社, 2003: 황동하, 「스탈린과 한국전쟁 발발 - 중 · 소관계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第79號, 2003: 이재훈, 「1949~50년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부대의 "입북"에 대한 복, 중, 소 3국의 입장」, 『국제정치논총』 제45집 3호, 2005.

적으로 활용하여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전쟁 발발 이전의 한반도관

소련이 해방 후 북한 체제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스탈린의 대북 입장은 많은 관심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소련이 동유럽의 동맹국에 비해 북한에 대한 비중을 낮게 보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스탈린은 심지어 사소한 대북 지원에 있어서도 인색함을 드러내곤 하였다. 이를 테면, 그는 1946년 12월 18일자 전문에서 북한의 산업 및 철도수송의 복구와 발전을 위해 82명의 소련 전문가 파견을 약속한 바 있었지만 이듬해 5월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북한 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의 거듭된 요청이 있자 그는 그제서야 전문가 5~8명만을 파견하도록 조치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내정에 깊이 개입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sup>2)</sup> 북한에 대한 스탈린의 ‘홀대’는 소련주둔군의 유지비용 부담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1947년 10월 4일자 내각회의 결정을 통해 1948년도 북한 주둔 소련군 주둔 비용을 북한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놓았다.<sup>3)</sup> 이 비용을 북조선인민위원회에 부담토록 한 것은 남한 내 미군 주둔 비용을 미 정부가 제공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났다.

당시 스탈린은 전후 자국의 복구와 대유럽 전략에 더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고, 자체의 가용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농후했다. 가령, 소련군의 철수 후에 북한은 안전장치로서 소련과 친선 및 상호원조조약의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이 역시 실현되

2) 「메레츠코프와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1947.5.12)」, АПРФ, ф. 45, оп. 1, д. 346, л. 4.

3) 이 결정은 슈티코프를 비롯한 현지 군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일부 수정되었다. 이에 관한 논의는 「북조선 주둔 소련군 유지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ГАРФ, ф. p-5446, оп. 49A, д. 5425, лл. 1-10에서 볼 수 있다.

지 못했다. 슈티코프는 김일성에게 이 조약이 “나라의 분단을 유지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반대한 남조선반동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것”<sup>4)</sup>이라고 구실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자국의 이익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sup>5)</sup>

남북의 지도자들은 분단의 극복을 권력의 최대 관심사로 둘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해방’ 논리로 무장된 김일성에게는 더욱 큰 문제였을 것이다. 1949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은 무력통일 방침을 스탈린에게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때 김일성은 원론적 차원에서 이 방침을 표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북한 인민군이 남한군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지 못한 점, 남한에 주둔한 미군의 개입 등을 들어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sup>6)</sup> 하지만 그는 남한측이 공격해올 경우에는 반격을 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소련의 지원 능력 미비와 미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그가 북한지도부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였다. 대신에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4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차관 2억 1천 200만 루블을 비롯한 경제 원조를 획득하였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킬 기회를 마련하였다.

모스크바 방문 이후 김일성 지도부는 소련에 지속적으로 개전 의사와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 하였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평화적 방식에 의한 나라의 통일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통일의 지연에 대한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이 무력통일을 결심한 데에는 우선 남조선 인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

4) 「슈티코프가 몰로토프에게(1949.1.19)」, АПРФ, ф. 3, оп. 65, д. 3, лл. 1-2.

5) 소련이 동유럽국가들과는 1948년까지, 중국과는 1950년 2월 14일에 상호동맹조약을 체결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탈린이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남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6) Капица М. С. На разных параллелях. Записки дипломата(다양한 위도상에서. 한 외교관의 기록). М., 1996, с. 217; A.V. 토르쿠노프/구종서 옮김,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2003, 44-45쪽.

여서라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통일문제에는 수년이 걸리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좌익 조직들은 세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측은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여 북진을 감행할 수 있다는데 우려하였던 것이다.<sup>7)</sup> 이처럼 북한측의 개전에 대한 희망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38도선상에서 남·북간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지도부는 최소한 개성과 웅진반도를 장악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슈티코프는 육상 전선을 축소하기 위해서도 이 작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다.<sup>8)</sup> 그러나 모스크바 지도부는 9월 24일 당 정치국 결정을 통해 북한측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남측에 비해 우세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남쪽에서 유격투쟁이 미흡하고 전인민적 봉기를 조직하기에 역부족이란 것이었다.<sup>9)</sup> 크레믈린 당국은 웅진반도와 개성 지역 점령을 위한 국지전도 남북간 전쟁의 출발로 간주하여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였다.

이 훈령은 한반도 내부의 역량 미흡만을 전쟁 불가의 이유로 들었을 뿐 정작 더욱 중요한 요인인 소련의 대북 지원 한계나 미국의 개입 우려에 대한 문제는 적시하지 않았다. 사실 북한의 무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었지만 반대로 유격대를 포함한 남한 내 좌파 세력의 활동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스탈린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그러한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확실하고도 안전한 승리의 방정식을 기대한 것이었다.<sup>10)</sup> 이러

7)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남북 조선의 정치경제 상황 개요(1949.9.15)」, АПРФ, ф. 3, оп. 65, д. 776, л. 16. 동시에 김일성과 박헌영은 슈티코프에게 조선이 무한정 분단된 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전달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개전 시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기대하였는데, 특히 조선인들이 중국 국민당 군대와외 전투에 참가하였으므로, 중국도 북조선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8)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남북 조선의 정치경제 상황 개요(1949.9.15)」, АПРФ, ф. 3, оп. 65, д. 776, л. 17.

9) 「조선 주재 대사에게 보내는 훈령(1949.9.24)」, АПРФ, ф. 3, оп. 65, д. 776, лл. 31-32.

한 사정에서 볼 때, 그 당시는 조급한 김일성 지도부와는 달리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때였다.

소련의 군사적 지원에 힘입어 북한 인민군의 무장은 빠른 속도로 강화되었다. 이를테면, 1949년 8월 1일 현재 북한 인민군은 보병 사단 5개, 보병 여단 1개, 기계화 여단 1개 등 도합 80,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소련측의 비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무장 수준은 남한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었다.<sup>11)</sup> 그러나 전쟁 발발 시기에 이르러 북한의 총병력은 약 18만 8,000명을 상회함으로써 약 111,000명에 그친 남한을 압도하였다. 북한군의 무장은 일제 구식 무기 및 자체 생산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련으로부터 들여온 무기들로 충당되었다.<sup>12)</sup>

북한지도부의 무력통일 방침에 대한 스탈린의 입장 변화는 1950년 들어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개전에 대한 동의를 이끌도록 하였을까. 중국 혁명 성공 직후인 1949년 12월과 이듬 해 2월 두 차례에 걸친 모택동의 모스크바 방문이 있었다. 처음 중소 두 정상은 평화의 보장 문제를 “현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간주할 만큼 지역 정세의 안정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sup>13)</sup> 두 번째 회담에서 양자는 북한의 지원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스탈린은 ‘조선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길 원했고, ‘두 개 조선의 존재’에 동의할 수 없었다.<sup>14)</sup> 같은 시기 스

10)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중도적인 역사학자 존 M. 톰슨은 1930년대 스탈린이 “외국 적들에 대해 편집증적인 위협을 느꼈”고, 마찬가지로 제2차 대전 후에는 “동유럽과 독일에 친서방정부를 수립하려는 연합국의 노력을 당연히 우려하였다”고 쓰고 있다. 김남섭 옮김,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사회평론, 2004, 399, 469쪽. 요컨대, 스탈린이 한국전 발발 전후에 대외적으로 보인 조심스런 태도와 접근은 결코 우연이라 볼 수는 없다.

11)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남북 조선의 정치경제 상황 개요(1949.9.15)」, АПРФ, ф. 3, оп. 65, д. 776, лл. 18-19.

12) 한국전쟁기 소련의 대북 군사지원에 관해서는 기광서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와 중·소 군대의 참전 문제 - 한국전 발발 전후를 중심으로 -」, 『역사문화연구』(제25집, 2006)을 참조.

13) 「스탈린과 모택동의 회담 기록(1949.12.16)」, АПРФ, ф. 45, оп. 1, д. 329, лл. 9-17.

14) Коротков Г. И., И. В. Сталин и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스탈린과 한국전쟁/Война в Корее

탈린은 김일성의 개전 협의 요청에 언제든지 그와 이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아울러 도움을 줄 준비가 되었다는 회신을 보냈다.<sup>15)</sup>

동년 3월 30일~4월 25일 김일성과 박헌영의 모스크바 방문은 스탈린의 개전 동의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때 그가 언급한 개전을 위한 상황의 변화는 ① 중국혁명의 성공으로 국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의 조성 ② 필요시 중국군의 파병 가능 ③ 중소동맹 체결에 의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 축소 ④ 소련의 원자 폭탄 개발 등이었다.<sup>16)</sup> 스탈린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한 내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그의 개전 동의는 흔쾌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때도 그 자신은 소련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나름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만에 하나 그것이 이루어질 경우 자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견지해온 '일국사회주의론'적 입장이 여전히 그의 머리 속을 지배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미국의 개입 여부와 중국지도부의 동의를 개전을 결정짓는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미국의 개입 문제에 대한 스탈린의 생각은 당시 소련공산당 정치국원이었던 흐루쇼프의 증언에 의해서도 뒤받침 되고 있다.

1950-1953(Взгляд через 50 лет), М., 2001, с. 76.

- 15)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1950.1.30)」, АВІР, ф. 059а, оп. 5а, п. 11, д. 3, л. 92. 일부의 연구들은 스탈린의 개전 동의를 중국의 대만 해방 저지를 비롯해 모택동을 견제하고 그를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황동하, 「스탈린과 한국전쟁 발발 - 중·소관계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第79號, 2003, 116-118쪽.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진실로 증명되려면, 스탈린이 미군의 개입과 최악의 경우 제3차 대전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중국의 참전은 미군의 개입 시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와 같은 주장을 사료적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 16) 예브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52-53쪽; Торкунов А. В. Загадочная война: корейский конфликт 1950-1953 годов(수수께끼 전쟁: 1950-1953년 한국전쟁). М., 2000, с. 58-59. 위의 인용은 당시 대담 기록을 요약한 것이며, 기록의 원본은 아직 발견(공개)되지 않고 있다.

스탈린은 약간의 의심을 표명하였다: 미국이 간섭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인가를 그를 불안하게 하였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김일성은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의 간섭이 배제될 것이며 자신의 무력으로써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두 사람 모두 여기에 일치를 보았다.<sup>17)</sup>

김일성이 미국의 개입이 없을 것임을 확신한 반면<sup>18)</sup> 스탈린은 여기에 약간의 의문을 가졌지만 양자는 속전속결에 의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스탈린이 중국지도부의 동의를 개전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 것은 미국의 개입 등으로 북한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중국의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스탈린은 5월 14일 모택동에게 서신을 보내 미군의 개입 시 중국측에 책임을 확실하게 다짐 받고자 하였다. 여기서 그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조선인들의 통일 착수에 동의하지만 이 문제는 중국과 조선이 공동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중국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검토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19)</sup> 한편 스탈린은 이전에 북한측이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친선과 동맹, 상호원조조약의 체결을 중국과는 체결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만 승리를 굳히고 외세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의 해방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었다.<sup>20)</sup> 개전 직전 스탈린의 의중은 자국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의 개입이 없는 철저히 '내전'의 형태로 이끌려야 한다는 데 있었다.

17) Хрущев Н. С. Воспоминания. Время, люди, власть/회고록. 시대, 사람들, 권력/Т. 2, М., 1999, с. 83.

18) 김일성은 개전 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란 확신을 동년 5월 모택동과의 회담에서도 표명한 바 있다. 이때 모택동은 미군이 직접 개입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보였으나 김일성은 미국이 극동에서 싸울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Торкунов А. В. Там же, с. 69-70.

19) 「스탈린이 모택동에게(1950.5.14)」, АПРФ, ф. 45, оп. 1, д. 331, л. 55.

20) Торкунов А. В. Там же, с. 59.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은 “한반도에서 해방이라는 대사업이 성취되려면 조약이 즉시 조인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역이다. A.V. 토르쿠노프/구종서,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132쪽.

북한 지도부와의 대담에서 스탈린은 기본적인 3단계 공격계획의 제시를 통해 개전 방식을 지도하였다. 첫 단계로 병력을 준비, 집중 배치하고, 둘째 단계에서 북한이 평화통일안을 제시하며, 셋째 단계로, 이 제안이 남한에 의해 거부된 후에 군사작전을 개시한다는 것이다.<sup>21)</sup> 북한지도부는 스탈린의 제의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행에 옮겼다. 다만 김일성은 동맹군대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힘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다.<sup>22)</sup>

한반도 분단에 대해 소련은 미국과 남한의 지배층에 모든 책임을 돌렸지만 어쨌든 분단 그 자체는 소련의 개입하에 이루어졌다. 즉, 스탈린은 한반도 분단 극복에 대한 '동지적 의식' 혹은 지연된 '지역 혁명 위업의 완수'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으며,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공유해야 하는 '해방'에 대한 세계관을 거슬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신생 동맹국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무력 통일 욕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로서는 사회주의 종주국의 체면을 유지하고 국제 사회주의의 확장을 위해 약간의 우려 속에 개전을 승인하였다. 최악의 경우 중국에 책임을 떠넘길 장치로 마련해 둔 상태였다.

### 3. 개전과 외피적 불개입

한국전 개전에 이르는 준비 과정은 소련의 대대적인 군수지원을 통해 이루어졌고, 작전 계획도 소련군사고문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수립되었다. 전반적인 개전 준비 상황은 현지로부터 스탈린에게 보고되었으며, 그는 상응

21) 예브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김광린 역, 위의 책, 54쪽: Торкунов А. В. Там же, с. 59.

22) 김일성은 수차례에 걸쳐 외부 군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통일을 수행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으나 그 결심이 변한 것은 몇 달이 걸리지 않았다.

하는 주문과 조언을 하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소련의 한국전 관련 정책 라인인 스탈린이 독점권을 행사하였다. 그는 당 정치국원들<sup>23)</sup>에게 한국전 관련 주요 보고 문서들을 회람시키기는 했으나 정치국 내에서 주요 결정을 채택하는 일은 드물었다. 주요 정책은 그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단독으로 결정되고, 그것은 그의 명령에 의해 집행되었다. 전쟁 과정의 긴박성이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요구하는 사안임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독단성은 매우 두드러졌다.

한국전 개전에 대해 스탈린은 극히 모순된 태도를 취했다. 즉, 북한의 '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반면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전쟁 불개입' 태도가 그것이었다. 개전 직후 소련은 이 전쟁이 마치 자국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사건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이 즉각적으로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도 참가를 거부하였다. 소련의 첫 공식 반응은 개전 4일이 지난 29일에 있었다. 당시 소련외교의 일선을 책임지고 있던 외무성 제1부상 A. A. 그로미코는 성명을 통해 조선에서의 사태는 남조선군대의 공격에 의한 것이며, 그 책임은 남조선 권력과 그 배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련의 안보리 불참은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선출되는 것을 반대하여 "합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sup>24)</sup> 물론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였다.

23) 한국전 당시(1952년 이전) 당 정치국원들로는 I. V. 스탈린(당총서기, 내각회의 의장), N. A. 불가닌(내각회의 제1부위원장), K. E. 보로실로프(내각회의 부의장), V. M. 몰로토프(내각회의 부의장), A. A. 안드레예프(당 중앙위원회 산하 당검열위원회 위원장, 내각회의 부의장), L. M. 카가노비치(인민경제 물자-기술공급 담당 내각회의 국가위원회 위원장, 내각회의 부의장), A. I. 미코얀(내각회의 부의장), N. S. 흐루쇼프(당 모스크바시 및 주당 제1서기), L. P. 베리야(내각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의장, 내각회의 부의장), G. M. 말렌코프(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내각회의 부의장), A. N. 코시긴(경공업상, 내각회의 부의장) 등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한국전에 밀접히 개입한 이는 소련 무력상을 역임한 불가닌 정도였다.

24) Правда(프라우다), 1950.6.30.

소련대표가 미국이 소집한 안보리 회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더라면 미국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다군적군을 파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시간을 벌어 북한측에 보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sup>25)</sup> 그로미코는 스탈린에게 만일 안보리가 북한이나 또는 북한과 소련 모두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뜻밖에도 스탈린의 반응은 회의에 참가하지 말 것이었다. 이에 그로미코가 안보리가 '유엔군'의 남한 파견을 포함하여 일체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지만 그는 여기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sup>26)</sup> 분명한 것은 안보리 불참 결정은 스탈린 자신이 내린 명령이고, 이는 소련 지도부 내에서조차 이견을 노출한 사안이었다.

스탈린이 안보리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먼저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굳건한 '연대'를 계속 보여주고자 했을 수도 있다. 6개월 이상 중국과의 공조를 아무런 절차 없이 순간적으로 반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안보리 참석이 자칫 미국에게 전쟁 개입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어 북한과의 공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sup>27)</sup>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스탈린과 중국은 후일 중국의 참전으로 전쟁이 장기전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을 붙잡아놓은 것이 유럽 안보의 보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가설로 개전 당시부터 스탈린은 미군의 참전을 예상하면서 그와 같은 세력 균형을 보장

25) 1950년 1월 13일부터 소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선출이 반대를 받은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안보리 회의 및 기타 유엔기관의 업무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련이 안보리에 복귀한 시기는 거의 7개월이 지난 8월 1일이었다.

26) Громько А. А. Памятное(회고록). Т. 1. М., 1988, с. 206-207.

27) 소련의 안보리 결석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오충근은 소련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국이 이 전쟁의 공모자임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결석을 택했다고 하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정책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충근, 『한국전쟁과 소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석: 허사로 끝난 스탈린의 '실리' 외교』, 『한국정치학회보』 35집 1호, 2001.

받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미군의 참전을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그간 미국의 개입을 우려한 그의 일관된 진술을 통째로 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북한 인민군의 신속한 진군을 재촉했던 그의 말이 거짓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진격을 머뭇거리고 있던 7월 1일 그는 지속적인 진군을 주문하면서 "조선이 빨리 해방될수록 (미국의 -인용자주) 군사적인 간섭의 기회는 줄어들 것"라고 강조하였다.<sup>28)</sup> 그의 의도는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속전속결을 통한 전쟁을 마무리하라는 데 있었다. 더욱이 미항공대의 작전 개입에 더하여 미군의 대거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빠른 진격을 통한 점령지 확대는 초미의 문제였다.

소련의 '공개적 개입 금지' 원칙은 군사고문단의 활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인민군의 작전계획과 준비과정은 군사고문들이 적극 개입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전 참여는 금지된 상태였다. 군사고문들이 포로가 되었을 경우 소련을 겪을 곤혹감을 미리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소련측의 태도는 이 전쟁이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사업'이라는 스탈린의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대규모 전투 경험이 부재한 북한 군대는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소련군의 풍부한 작전 지도가 절실히 필요했음은 물론이다. 김일성은 7월 8일 "25~35명의 소련 군사고문들을 조선인민군 전선 참모부와 2개 군 참모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sup>29)</sup> 북한측의 요청을 받은 슈티코프는 상부의 허가 없이 고문들의 파견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스탈

28)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1950.7.1)」, АПРФ, ф. 45, оп. 1, д. 346, л. 104. 북한군이 서울 점령 후 3일간 진격을 멈춘 이유에 대해 신복룡은 "북한군의 최종 목표는 서울을 점령하는 것으로 종료하도록 되어" 있었고 "김일성이나 스탈린은 남한 전역의 군사적 점령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 한울아카데미, 2001, 643~644쪽.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지만 애초의 계획이었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29)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1950.7.8)」, АПРФ, ф. 45, оп. 1, д. 346, лл. 143-144.

린은 슈티코프를 질책하면서 군사고문들을 민간복을 입혀 『프라우다』지 특파원으로 위장하여 전선사령부와 군단에 파견하도록 허가하였다.<sup>30)</sup> 아울러 군사고문들이 포로가 될 경우 슈티코프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였다. 스탈린으로서는 사후 허가를 내린 셈이었고, 여기서도 소련의 공개적 개입이 드러나는 상황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4. 동맹군대의 참전 문제

개전 이후 공군을 위시한 미군의 참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전황에 불안 을 느낀 북한지도부는 동맹군대의 참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였다. 슈티코프는 북한측으로부터 소련의 직접 개입에 대한 요청을 빈번하게 받았지만 그때마다 이 사안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이에 관한 대화를 회피 하였다. 북한측이 절실히 원했던 것은 미항공대에 맞서는 항공지원이었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후 소련은 한 때 연해주에 배치된 소련 항공기 40대를 평양으로 파견하는 계획을 검토하였다.<sup>31)</sup> 예상대로라면 10월 3일 쯤 소련항공대는 북한 상공에서 미군기와 조우할 수도 있었지만 이 계획은 돌연 취소되었다. 그 이유는 소련 전투기가 미공군기와 공중전을 벌일 경우 러시아어로 이루어지는 무선 교신으로 인해 소련 공군의 참전이 드러날

30)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1950.7.8)」, АПРФ, 미상. 필자는 200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소련 군사고문들의 38도선 월경 금지 명령이 정전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쓴 바 있다. 「소련의 한국전 개입과정」, 『國際政治論叢』 제40집 3호, 2000, 160쪽. 이는 자료 해석의 오류로 인한 필자의 착오였다. 다만 이 때 투입된 소련군사고문들의 작전 기여도는 수적인 구성에서 나타나듯이 그리 높지 않았다.

31) 「바실리엡스키가 스탈린에게(1950.9.21)」, АПРФ, ф. 3, оп. 65, д. 827, лл. 79-80; 「바실리엡스키가 스탈린에게(1950.9.23)」, АПРФ, ф. 3, оп. 65, д. 827, лл. 81-82. 바실리엡스키에 의하면, 연해주 스파스크 비행장에서 La-9기 40대로 편성된 제32전투비행사단 이하 제304전투비행연대는 10월 1~2일에 걸쳐 평양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것을 우려한 데 있었다.

9월 29일 김일성·박헌영은 스탈린에게 소련을 비롯한 우방에 참전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자력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였다. 북한지도부의 동맹 군대 참전 요청에 대해 스탈린은 즉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에 10월 1일 그는 슈티코프에게 서신을 보내 ① 군사력 조직을 통한 적의 38도 진격 저지 및 38도선 이북에서의 전투 대비 ② 남반부에서의 유격전 전개 ③ 튼튼한 방어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지도부의 개편 등을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주문하도록 하였다. 가장 중요한 동맹 군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의용군 형태의 지원을 중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하였다.<sup>32)</sup> 같은 날 슈티코프와 북한 주재 총군사고문 바실리에프에게는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 한 명의 군사고문관도 포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스탈린의 지시가 전달되었다.<sup>33)</sup>

스탈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빚어진 북한군의 위기에 직면하여 소련군 총참모부 부참모장 M. V. 자하로프 대장을 북한 주재 소련군 총참모부 대표로 파견하였다.<sup>34)</sup> 그의 파견은 슈티코프가 비군사전문가이고, 특히 많은 문제에서 북한지도부에게 확답을 해주지 못한데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일정

32)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1950.10.1)」, ЦАМО, ф. 48, оп. 7, д. 134, лл. 81-83.

33) ЦАМО, Корректировка пл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в Коре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няющейся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 военно-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한국에서 변화하는 군사정치, 군사전략 상황에 따른 소련군 전투행동 계획의 수정/(미발간 논문), л. 4. 1951년 9월 15일부터는 고문관들은 작전중인 부대에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34) 얼마 후 자하로프는 마트베예프라는 필명을 사용하면서 중국 주재 소련군 총참모부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슈티코프와 총군사고문 바실리에프는 1950년 11월 말 북한 지역에 대한 “미군과 남조선군의 반격 시기에 나타난 사업상의 과오”를 추궁 당하고서 곧바로 경질되었다. 슈티코프는 이듬해 2월 3일 중장으로 강등되었다가 10일 후에는 곧바로 준예비로 면직되었다. ЦАМО, Состав группировки сил и средств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принимавших участие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в Корее на различных этапах войны/한국전쟁의 여러 단계에서 전투에 참여한 소련군 부대 및 장비 구성/(미발간 논문, 이하 「소련군 부대 및 장비 구성」), 1995, л. 3. 슈티코프 경질 이후 북한주재 대사 겸 총군사고문으로 V. N. 라주바에프 중장이 부임하였다.

한 불신이 영향을 끼쳤다. 최고 군사전문가로서 자하로프는 북한측과 인민군 지휘 체계의 재조직, 방어선의 준비 등 대비책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유능한 군사전문가 파견만으로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북한이 패배의 위기에 몰리자 흐루쇼프는 스탈린에게 북한에 “보다 특별한 원조”를 제공해줄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국군의 참전은 여전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흐루쇼프에 따르면,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1개 또는 최대한 2개 전차군단을 지원 받았다면 남쪽으로의 진격이 가속화되었을 것이고 지체 없이 부산을 점령했을 것”<sup>35)</sup>이며, 이 경우에 미국은 더 이상의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스탈린의 직접 개입 불가원칙은 유엔군의 상륙 후 민족보위성 문화부상 김일(金一)을 비롯한 북한지도부 일부의 직접적인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김일성 자신은 불만을 표출할 위치가 아니었기에 이를 삼갔으나 부하들의 반발을 방조한 인상을 주었다.<sup>36)</sup> 김일성 지도부로서는 동맹군의 참전 유도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의 긴급 동맹군 파병 요청에 대해 스탈린의 입장은 확고부동했으며, 소련군 참전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스탈린은 “이미 마음속으로 체념하고 이것이(소련의 불개입 - 인용자)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듯이 보였다.”<sup>37)</sup> ‘예정대로’ 그는 중국에 부담을 돌려 가능하다면 5~6개 사단병력을 의용군으로 조직하여 파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sup>38)</sup> 그러나 애초 지원을 약속했던 중국이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자 중·소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흘렀다. 10월 8일 중국은 총리 주은래와 당 정치국원 임표(林彪)를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중국의 참전 시 무기 원조와 항공 엄호 등 소련의 지원을 받아내려 하였다.

35) Хрущев Н. С. Там же, Т. 2, с. 85.

36) 기광서,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와 중·소 군대의 참전 문제 - 한국전 발발 전후를 중심으로 -」, 99~106쪽.

37) Хрущев Н. С. Там же, Т. 3, с. 476.

38) 「스탈린이 모택동 또는 주은래에게(1950.10.1)」, АПРФ, ф. 45, оп. 1, д. 334, л. 90.

양측은 처음에는 중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중국측 참전이 불투명해지자 12일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급보를 보내 중국이 군대 파견을 거부했음을 알리고 북조선에서 철수하고 인민군을 북쪽으로 퇴각시킬 것을 요구하였다.<sup>39)</sup> 그러는 사이 모택동의 결단으로 소련의 지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군대의 파병이 결정되었다. 중국 군대의 파병 결정에 즈음하여 스탈린은 패전의 위기에 봉착한 북한지도부와 마찬가지로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군대의 파병 결정에는 스탈린과 중국 모두 전향반도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기지’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숨어 있었다.

중국 군대는 원래 계획보다도 3배나 많은 18개 사단이 일거에 투입되어 전황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 후 중국은 팽덕회를 사령으로 한 조·중연합사령부를 통해 군사작전을 지휘하였고, 한편으로 전쟁 관련 국가 사이의 정치적 조정 기능을 상당 부분 장악하였다.

스탈린은 중국 군대의 참전 결정 과정에서 미 항공대의 공격을 엄호해달라는 중국측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었다. 중국측 요구가 거세기도 했거니와 중군 군대만으로 유엔군의 진격을 막아내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으로 공군의 출격은 지상군의 파견보다 자국의 참전 비밀을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선택이기도 했다.

소련공군의 참전은 1950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소련 제64항공군단은 주로 공세적인 미공군에 맞선 방어적 임무에 치중하였는데, 처음에는 중국지역의 주요 시설과 및 압록강의 교량 및 수력발전소 등의 방어에, 이후에는 평양-원산 라인까지 작전 반경이 확대되었다. 소련공군의 참전은 상대 진영에 대한 직접 타격이 실시되지 않은 방어에 치중한 작전이었다. 이는 스탈린의 ‘비밀개입’ 원칙에 의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작전에 투입된 항공기들은 모두 중국과 북한기로 위장하였다. 미국을 자극하여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sup>40)</sup> 작전 초기 소련 공군은 중국인민

39) 「스탈린이 김일성에게(1950.10.12)」, АПРФ, ф. 45, оп. 1, д. 334, л. 109.

지원군의 작전을 엄호함으로써 전세의 역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미 공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상황이 변한 이후에도 전쟁 정책의 최종 결정은 여전히 스탈린의 수중에 있었고 그의 군사적 조언과 지도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그는 1951년 1월 말 북한인민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군대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향상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총 28개 사단을 23개 이하로 줄일 것과 군단 지휘부의 재편성이 시의적절하지 않으며 대신에 기존의 군지휘부를 4개 사단으로 편성하여 도합 5개 군으로 운용하도록 권고하였다.<sup>41)</sup> 그해 6월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총군사고문 크라슈스키와 제64항공군단장 벨로프를 향해 중국 조종사 교육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질책하면서 8개 중국 전투비행사단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전선으로 파견할 것을 지시하였다.<sup>42)</sup> 이와 같은 스탈린의 군사적 지도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스탈린은 자신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대가로 북한과 중국에 비교적 아낌 없는 군수지원을 해주었다. 비록 소련이 개발한 최신 병기들이 투입되거나 무상 지원은 아니었으나 전쟁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수장비들은 대부분 스탈린의 원조 제공에 의존하였다. 소련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그것으로 소련제 무기와 탄약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1950년 이래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50억 루블(약 13억 4천만 달러)을 빌어 주로 한국전쟁에 쏟아 부었다.<sup>43)</sup> 이러한 군사원조 없이 스탈린의 발언권이 지속

40)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소련공군의 참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미국 역시 소련과의 직접 충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소련공군 참전에 관한 미국의 인지에 관해서는 R. 프트렐 編著/姜勝基 譯, 『한국전에서의 미공군의 전략』, 행림출판, 1982, 357과 462쪽 참조.

41) 「스탈린이 라주바예프에게(1951.1.30)」, АПРФ, ф. 45, оп. 1, д. 348, лл. 12-13.

42) 「스탈린이 크라슈스키와 벨로프에게(1951.6.30)」, АПРФ, ф. 45, оп. 1, д. 339, л. 47.

43) 네룽전(聶榮臻), 「항미원조전쟁 중에서(在抗美援朝戰爭中)」, 『韓國戰爭과 中國 II』, 行政自治部 政府記錄保存所, 2002, 211-212쪽.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전쟁 지도에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소련의 지속적인 군수지원과 공군의 참전이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쟁의 장기화는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소련의 권위를 위축시켰다. 앞서 언급한 북한 지도부 내의 불만도 그렇지만 중국 인민지원군 내의 동향도 간단하지는 않았다. 중국군 참전 이후 소련은 중국인민지원군에도 군사고문단을 두어 작전을 지원하였다. 전쟁 초기 대규모 작전 경험이 전무한 북한군 지휘관들이 소련군사고문들에 의존했을 때와는 달리 중국지휘관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판이했다.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팡덕희나 부참모장 섭영진(聶榮臻) 같은 지휘관들은 소련군사고문들과 의견 차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sup>44)</sup> 중국측 고위 지휘관들의 그러한 태도는 향후 중·소간 갈등의 씨앗을 키워나가는데 영양소가 되었을 것이다.

## 5. 휴전에 이르는 길

한국전 휴전 문제는 1950년 9월 말 소련 지도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재 소련 대표들에게 미국 외교관들과의 접촉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협상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sup>45)</sup> 그렇지만 상당 기간 양측간의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세를 만회하게 된 공산측은 처음 휴전 문제에 대해 선부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12월 7일 주은래가 제기할 휴전 조건<sup>46)</sup>에 대해 스탈린은 원칙적인 동의를 표하면서도

44)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2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229쪽.

45) 「그로미코가 비신스키에게(1950.9.28)」, АПРФ, ф. 3, оп. 65, д. 827, л. 97.

“서울이 해방되기 전까지는 중국이 자신의 모든 카드를 내보이기에 이르다”고 말하고, 오히려 미국과 유엔의 입장을 파악하도록 권고하였다.<sup>47)</sup> 그에게는 당장의 휴전 협상보다 전세를 보다 유리하게 굳히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이 때 공산측은 휴전 조건으로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의 즉각 철수와 조선 문제의 해결은 조선인민 스스로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사실상 유엔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셈이다.

휴전문제는 개전 이후 거의 1년간에 걸친 치열한 양측의 공방전 속에 전선이 38도선 근방에서 교착되기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1951년 6월 들어 모택동은 중국군대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서 조심스럽게 휴전을 모색하였다. 군의 사기 저하, 군수품 부족 등 부정적인 내용들로 채워진 전선의 소식들이 중국지도부를 지치게 한 것은 물론이었다.

스탈린은 모택동이 재정 문제와 군사작전 수행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김일성과 고강의 모스크바 방문을 원한다는 서한을 보내자 이에 대한 답신에서 전쟁을 가속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표했다. 그 이유로는 장기전이 첫째, 중국 군대에 현대전을 습득케 하고, 둘째, 트루먼 체제를 동요시키고 미·영 군대의 위신을 실추시킬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sup>48)</sup> 스탈린의 진정한 본심은 두 번째 이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전쟁의 장기화를 통해, 특히 유럽에서 미국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의도였다. 그의 구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었

46) 이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할 것 2.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 영토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 3. 조선 문제는 조선 인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것 4. 중화 인민공화국 대표를 유엔에 참가시키고 장개석 대표를 유엔에서 배제할 것 5. 일본과의 평화 협정 준비를 위해 4대 열강의 외무장관 회의를 소집할 것. 만일 위에서 언급된 군사행동 중지를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5대 열강은 휴전 협정 서명을 위한 회의 소집에 자국 대표들을 파견할 수 있다. 『로신이 스탈린에게(1950.12.7)』, АИРФ, ф. 45, оп. 1, д. 336, лл. 18-19.

47) 『그로미코가 로신에게(1950.12.7)』, АИРФ, ф. 45, оп. 1, д. 336, лл. 20-21.

48) 『스탈린이 크라슈스키에게(1951.6.5)』, АИРФ, ф. 45, оп. 1, д. 339, л. 24.

기에, 흥미롭게도 중국인민지원군 참전을 전후에 그가 보여준 ‘패배 의식’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김일성·고강과의 회담을 통해 휴전이 현재로서는 “유익한 일”임을 인정하였다.<sup>49)</sup> 그럼에도 원칙적인 양보 없는 상황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기에는 요원한 일로 보였다.

6월 30일 스탈린은 휴전 회담 장소로 미국이 주장한 원산항이 아닌 개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스크바가 아닌 모택동이 휴전 교섭을 지휘해야 한다고 하였다.<sup>50)</sup> 아울러 소련측이 김일성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그와 직접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휴전 협상 과정에서 스탈린-김일성 교신 라인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스탈린의 전략적 지침 제시 등 지도적 역할은 중단되지 않았다.

유엔측의 제의에 의해 7월 10일 개시된 휴전회담에서 양측은 예상대로 의제선정부터 대립하다가 26일 5개항의 합의를 보았다.<sup>51)</sup> 공산측이 철저히 관철시키고자 했던 ‘외국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하자 모택동은 협의 조항에서 제외할 것을 희망하였고, 스탈린은 이를 ‘다른 시기로 연기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하였다.<sup>52)</sup> 공산측으로서는 휴전의 최대 조건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었다.

중립지대인 개성에서 8월 19일과 22일 각각 벌어진 남측의 습격과 미군기 폭탄 투하 사건 등으로 휴전회담이 2개월 간 중단되었다. 사건 직후 김일성은 개성시대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국 대표들에게, 회담 재개의 필수조건으로 회담기간에 감독관 및 증인의 자격으로 회담에 참석해 줄 것을 제의하였다.<sup>53)</sup> 하지만 스탈린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중립국 국가 대표들의 초청은 마치 중국과 조선 측이 미국인들보다 조속한 시일

49) 『스탈린이 로신에게(1951.6.13)』, АИРФ, ф. 45, оп. 1, д. 339, л. 31.

50) 『스탈린이 크라슈스키에게(1951.6.30)』, АИРФ, ф. 45, оп. 1, д. 339, лл. 95-96.

51) 5개항의 다음과 같다. 제1항 - 의제의 채택, 제2항 - 군사분계선 설정, 제3항 - 휴전이행 감시 위원회 설치, 제4항 - 포로 교환 문제, 제5항 - 한반도 관계국간의 정치협상 개최.

52) 『스탈린이 모택동에게(1951.7.21)』, АИРФ, ф. 45, оп. 1, д. 340, л. 92.

53) 『모택동이 스탈린에게(1951.8.27)』, АИРФ, ф. 45, оп. 1, д. 341, л. 88.

내에 휴전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sup>54)</sup> 이처럼 스탈린의 대미 기싸움은 완고한 형태로 이어졌다.

장기전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측은 북한이었고, 이에 따라 김일성은 가능한 조속한 휴전을 희망하였다. 1952년 봄 소련대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그는 미 공군이 북한에 커다란 손실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회담을 질질 끄는 것은 이롭지 않고, 포로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믿었다.<sup>55)</sup> 동년 7월에도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미 공군에 대항한 고사포 무기와 비행기 지원을 희망하면서 “휴전협정 체결, 교전 중지, 제네바 협정에 의거한 포로교환 등을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을 요청하였다.<sup>56)</sup> 물론 북한과 중국이 휴전회담 기간 내내 협상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유엔군의 혹독한 공세에 맞서 군사행동의 강화를 역설하기도 하였다. 동년 8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주은래는 “미국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년 간 더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sup>57)</sup>고 하였다. 스탈린은 이 회담에서 미국이 “작은 조선에게도 승리할 수 없었다”는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그에게는 큰 성과였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조속한 휴전 희망은 국제전으로 전화한 상황에서 관련 국

54) 「스탈린이 크라슈스키에게(1951.8.29)」, АИПФ, ф. 45, оп. 1, д. 341, л. 89. 같은 해 11월에도 소련은 당정치국 결정을 통해 북한 정부가 제시한 조선에서의 전투행동의 즉각 중단, 전선으로부터의 군대철수와 2km의 비무장지대 설치, 조선전쟁 연장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내용으로 한 대유엔 호소문이 “현재 미국 측이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북조선측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불리한 행위”라면서 연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로미코가 라주바예프에게(1951.11.19)」, АИПФ, ф. 3, оп. 65, д. 829, л. 45. 그러나 북한측은 이 호소문을 제약 없이 발표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라주바예프는 본국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55) Vanin Yu. V., *The Korean War: From Local Conflict to International*, 『역사문화연구』 제25집, 2006, 185쪽.

56) 「김일성이 스탈린에게(1952.7.16)」, АИПФ, ф. 45, оп. 1, д. 348, лл. 65-68.

57) 「스탈린 동지와 주은래의 대담 기록(1952.8.20)」, АИПФ, ф. 45, оп. 1, д. 329, л. 67. 대담 후반부에 주은래는 중국은 전쟁이 2~3년 더 지속될 수 있음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련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다. 스탈린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가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우선 스탈린의 입장이 그랬다. 물론 휴전협상이 조기에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을 전부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공산측과 유엔측의 줄다리기가 문제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스탈린은 공산측의 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휴전보다는 전쟁 지속을 택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휴전회담은 그동안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극적인 타결 기회를 맞이하였다. 소련 정부는 휴전 협상에서 최대 난제였던 포로교환 문제에 대해 극적인 양보 조치를 주문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은 스탈린이 남기고 간 난제를 복잡하지 않게 해결했음을 보여주었다.

휴전 협정의 체결 후에도 소련의 전쟁 개입 사실은 끝까지 숨겨야 할 사안이었다. 소련국방성 제1부상 겸 소련군 총참모장 V. D. 소콜롭스키 원수는 북한 인민군 총군사교문 라주바예프에게 “(협정의) 서명 시에 조선인민군 전투부대에 단 한 명의 우리측 고문관도 있어서는 안 되며 조선에는 최소한의 고문관들만이 남고 나머지는 휴가를 보낼 것”<sup>58)</sup> 지시하였다. 스탈린의 사망 후에도 그의 원칙은 이후 계승자들에 의해 철저히 준수되었다.

## 6. 결론을 대신하여

스탈린은 한반도 분단에 책임 있는 - 본인은 그리 느끼지 않았을 지라도 -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력을 통한 북한지도부의 통일적 지향에 원칙적인 공감을 가졌음은 분명하였다. 그가 막상 이 방침에 동의하기를 주저한 것은 소련이 전쟁을 지원할 만큼 경제적으로 회복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미국의 개입을 현실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과의 충돌은 그로서는

58) 「소련군 부대 및 장비 구성」, лл. 7-8.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소련의 원폭 실험 성공과 중국공산당의 권력 장악은 그의 입장을 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희박하다고할 만큼 정세가 호전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쟁 기간 스탈린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총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가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① 소련이 두 국가의 안보에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점 ②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군수물자를 비롯한 각종 군사적 지원 제공 ③ 1930년 대 이후 사회주의 모국의 수령으로서 정신적, 도덕적 권위 유지<sup>59)</sup> 등의 요인들이 뒤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기간 스탈린은 소련의 공개적 개입 금지, 즉 철저한 비밀개입을 고수하였다. 그러한 방침은 무엇보다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가 한번도 표현한 적은 없지만 미국은 그에게 두려운 대상이었음에 틀림없었다. 따라서 한국전은 소련의 개입이 드러나지 말아야 할 전쟁이어야 했다. 당 정치국원들조차 전쟁 정책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은 스탈린의 독단성 이외에도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스탈린의 입장에서 소련의 안보리 참석 거부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였다. 스탈린 자신이 이 과오를 스스로 인정한 적은 없다. 그러나 미국 단독의 참전과 유엔 깃발 아래 16개 국가의 참전 간에 얼마만큼의 간격이 있는지는 그 자신이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그의 대미 공포는 중국 군대 참전을 둘러싼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을 사실상 포기하려는 의도까지 표출되었다. 하지만 중국 군대의 참전으로 전황

59) 이미 언급했듯이 스탈린이 정신적 권위는 김일성이 보낸 다음과 같은 서신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친애하는 스승이신 당신께 따뜻한 동정과 충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인민의 투쟁의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커다란 정신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조선을 또다시 예측시키려는 미국 간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리라는 결의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한 고상한 투쟁에서 원하는 당신의 어버이다운 배려와 원조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에게(1950.8.31)」, АИРФ, ф. 45, оп. 1, д. 347, лл. 14-15. 스탈린 생전 양자의 관계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역전되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전쟁 수행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었다. 바로 한반도에서의 장기전을 통해 미국의 전선 확대를 막아보고자 하였다. 그가 포로교환 문제 등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휴전 협상이 장기화된 원인의 하나였다. 북한과 중국은 더 이상 '무의미한' 전쟁을 종식하길 희망했지만 스탈린은 결정적인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치 않았다.

스탈린을 바라본 북한지도부의 경외감은 소련 국가와 완전히 등치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1953년 그의 사망 후 소련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스탈린을 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소련을 '조선의 해방자'로서 변함없이 칭송되긴 하였으나 전후 독립적인 움직임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원고투고일 : 2007. 3. 13, 심사완료일 : 2007. 6. 8)

주제어 : 스탈린, 한국전쟁, 소련의 개입, 미국, 김일성

&lt;ABSTRACT&gt;

## Practical Aspects of Stalin's Role in Intervention of the Korean War

Kee, Kwang-seo

This study aims at speculating Stalin'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especially, his leadership according to periods and stages. For the purpose, it examines how Stalin intervened in the war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initiative of the war was in North Korea's leadership centering on *Kim Il-sung* and *Park Hun-young*.

Stalin felt sympathy toward orientation of unification by North Korea through military power. However, he was reluctant to agree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direction as the Soviet Union did not recover its economic condition enough to support the war and he worried about the Washington's intervention in it. He had to avoid collision with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at that time. Nevertheless, Soviet Union's successful nuclear bomb experiment and the Chinese communist's coming into power made him change his position. He identified that the situation had a favorable turn so that the Washington's intervention possibility was in doubt.

Stalin was a chief leader involved in North Korea and China before and during the war. He could do it because Soviet Union was a strong prop for security of the two countries, provided a variety of military supports including war supplies and maintained mental and ethical authority as a leader of communist countries since 1930s.

Stalin prohibited Soviet Union's open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that is, he pursued its completely secret intervention in the war. It had a purpose to prevent a direct collision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might lead to the Third World War. Though he never said it, it was certain that he was afraid of the US Government. Even the members in its political bureau was blocked from the war policy because of Stalin's decision to keep it a secret in addition to his despotism.

Stalin refused the Soviet Union's attendance to the UN Security Council, which was a significant political error. Although he never approved this error, he might desperately realize what difference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s single entry into the war and 16 countries' entry under the sign of the UN.

His fear against the US Government was expressed as an intention to give up North Korea under such an emergent circumstance involving in Chinese military's entry into the war. However, Stalin infused a new meaning into the war as the situation changed due to China's entry. He attempted to prevent expansion of the war line by the United States through lengthening the war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he insisted his stubborn position on issues such as exchange of war prisoners was one of the reasons that the truce negotiation was lengthened. As the war lasted longer, North Korea and China hoped the meaningless war terminated, but Stalin did not want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a major concession.

Key Words : Stalin, The Korean War, Soviet Union's Intervention, The United States, *Kim Il-sung*